

# 美 “북·러 무기거래 시 응분의 조치”

### “새로운 제재 주저하지 않을 것” “이란 동결자금 송금 절차 진행중”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김정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과 관련, 무기 거래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메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북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이는 러시아가 1년반 동안 우크라이나 침공 끝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편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면서 “계속 이런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이전 공약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며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필요한 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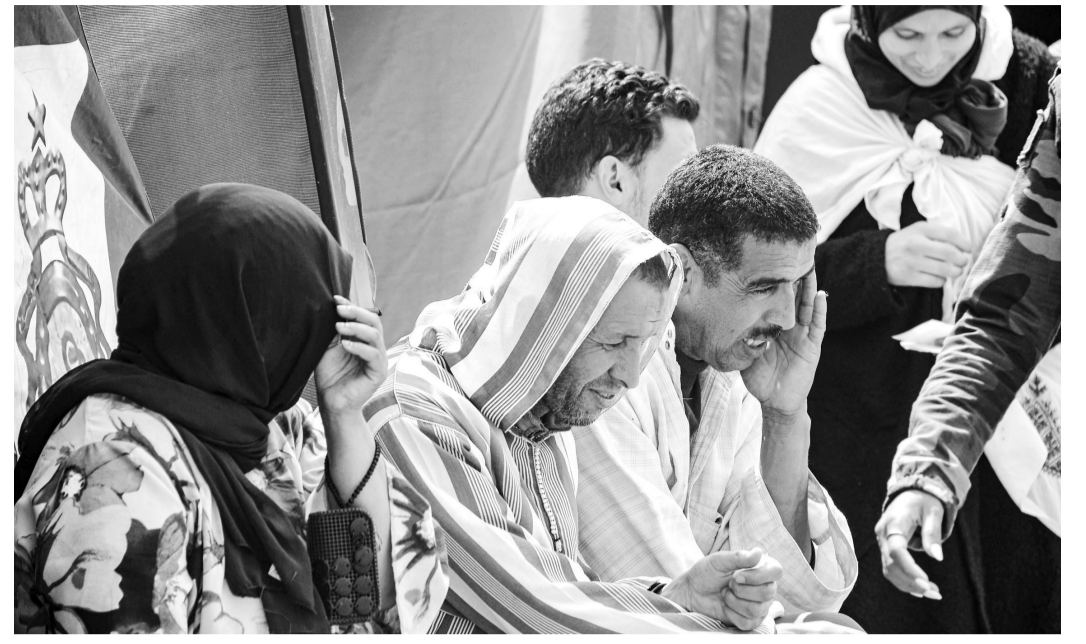
한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 석방 조건으로 이란에 돌려주기로 한 동결자금을 한국 등 외국 은행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면제안에 서명했으며, 어제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억류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금 60억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해 이란이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면제는 한국에 있는 자금을 카타르의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는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적용된다.

밀러 대변인은 구체적인 송금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최종 창구인 카타르 계좌까지 송금하는 절차 중에 있다”며 “이번주 중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자금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치료 기다리는 모로코 강진 부상자들 12일(현지시간) 모로코 알하우즈주(州) 아스니의 야전병원 의료 텐트 밖에서 강진으로 다친 주민들이 치료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일 모로코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해 2천900명 이상이 숨지고 5500여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가 침수돼있다.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는 이날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 이상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리비아 대홍수 사망자 5300명 넘어...실종자 최소 1만명

### “댐 붕괴 경고음 무시” 비판

대홍수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망자가 5300명 넘었다고 AP 통신·영국 일간 가디언이 리비아 국영 통신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는 이날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 이상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집계된 사망자 수보다 최소 3000명 늘어난 것이다.

실종자도 최소 1만 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데르나는 10일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폭풍우 ‘다니엘’로 많은 비가 내렸고 외곽에 있는 댐 2곳까지 무너지면서 대홍수를 겪었다.

이들 댐에서 쏟아져나온 엄청난 양의 물이 데르나를 덮쳐 추후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원사연맹(IFRC)은 전했다. IFRC 리비아 특사 타메르 라마단은 이 재민도 4만 명 넘게 나왔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흉탄 물이 집을 집어삼키자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등 아비규환의 모습이 담겼다. 홍수로 인해 강처럼 변해버린 거리에서 차들이 동동 떠내려가는 모습도 전해졌다.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 관계자는 데르나 지역 전체가 물에 휩쓸렸으며 많은 시신이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말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시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신 수백구가 공동묘지에 쌓여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줄 생존자도 부족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리비아 동부 보건부는 이날 기준으로 시신 1500구 이상이 수습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매장됐다고 밝혔다.

리비아에서는 이번 피해를 키운 댐 붕괴가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데르나 지역 댐이 무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학술지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 2개 중 하나가 붕괴해 데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머스크, 여성 임원에 정자 기증해 쌍둥이 얻어”

### 아이작슨이 쓴 전기 출간 “10대때 아버지 폭언에 시달려”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시본 질리스(36) 뉴럴링크 임원과 사이에 둔 쌍둥이 자녀는 정자 기증을 통한 것이었다는 전기 내용이 공개됐다.

이 전기에는 또 머스크가 10대 시절에 아버지의 폭언에 시달려 부친과의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 역시 부친의 극단적인 성격 일부를 닮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소개됐다.

아울러 머스크는 결혼하거나 사귀지 않은 여성과의 관계도 불안정했으며, 특히 배우 조니 데프의 전 부인 엠버 허드와도 교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연애였던 것으로 묘사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일론 머스크’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질리스와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

그는 “출산을 하라!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두려워했다고 아이작슨은 전했다. 질리스는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하길 권유했다”고 아이작슨에게 말했다.

아이작슨은 머스크와 질리스가 사귀지는 않았으며, 머스크가 질리스에게 정자 기증을 자청했다고 썼다. 질리스가 이에 동의했고, 체외 수정을 통해 2021년 이란남 남·여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이작슨은 머스크의 아버지 에를 머스크를 “오늘날까지 일론을 괴롭히는 엔지니어이자 악당, 카리스마 넘치는 몽상가”라고 표현했다.

머스크는 10세부터 17세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의 폭언과 조롱 등 언어적 학대를 견뎌야 했고 아이작슨은 썼다. /연합뉴스

## 인스타그램 최고 인기 美거리는 마이애미비치 오션드라이브

### 2위는 마이애미 노스웨스트 2번가

미국 플로리다주 대서양 연안에 있는 마이애미비치의 ‘오션 드라이브’가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명 거리로 꼽혔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NBC방송은 여행 정보 업체 ‘원더루’의 최신 조사 결과를 인용, ‘인스타그램’이 뽑은 미국의 유명 거리 톱20’을 소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마이애미 오션 드라이브는 인스타그램에 105만6081차례 해시태그가 붙어 전체 1위에 올랐다.

마이애미 비치 하단 2.1km를 남북으로 있는 오션 드라이브는 낮에는 평화로운 해안도로였다가 밤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의 거리로 변신한다.

2위는 마이애미의 노스웨스트 2번가(96만 1020차례)가 선정됐다. 이곳은 길거리 미술관 ‘윈우드 월스’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술의 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3위는 뉴올리언스의 역사지구 ‘프렌치 스퀘어’를 가로지르는 버번 스트리트(84만49), 4위는 로스앤젤레스의 명품 쇼핑가 ‘로데오 드라이브’ (82만4100), 5위는 라스베이거스 중심가 ‘더 스트립’ (60만6900) 등의 순이었다.

이어 6위는 뉴욕의 대표적 쇼핑거리 5번가(57만2912), 7위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스타 명예 거리(48만5000), 8위는 ‘환상의 1마일’로 불리는 시카고 변화가 미시간 애비뉴(35만 3000), 9위는 금경사·금커크빌이 인상 깊은 샌프란시스코 롬바드 스트리트(33만1200), 10위는 로스앤젤레스 쇼핑가 멜로즈 애비뉴(31만5800)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